

고정희 시의 수평적 저항성 연구

장서란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연구교수

목차

- 1 들어가며
- 2 수평적 정신분석학과 동기애(同氣愛)
- 3 수평적 저항성을 형성하는 ‘어머니의 법’
 - 3.1 성차를 벗어나는 남매애와 ‘아버지의 법’에의 저항
 - 3.2 “정실부인”과 “독신녀”의 자매애와 ‘아버지의 법’에의 저항
- 4 나가며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4680)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줄리엣 미첼의 수평적 정신분석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고정희 시에 나타나는 수평적 저항성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수평적 동기 관계에서 작동하는 ‘어머니의 법’은 ‘아버지의 법’과 달리 아이들의 상호간 차이에서 평등함을 전제한다. ‘어머니의 법’을 통해 형성되는 동기에는 수평적 저항성의 가능성을 지닌다.

고정희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삼아 사회적 남매애와 자매애, 즉 동기애를 구축함으로써 ‘현재’를 억압하는 ‘아버지의 법’에 저항하는 수평적 저항성을 구현한다. ‘어머니’는 현실적·초월적 속성을 동시에 지님으로써 피억압자의 상징이자 모든 피억압자의 ‘어머니’로서 좌정한다. 또한 상호의존적인 순환적 자연관과 연결됨으로써 이분법적이고 억압적인 상징 질서를 극복하는 새로운 질서로 제시된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삼아 구축되는 동기애는 여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의 분열을 타개함으로써 수직적 억압 구조를 변혁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한다. 즉 ‘어머니의 법’으로 ‘아버지의 법’을 몰아내려는 시적 상상력은 고정희 시가 지니는 저항성의 한 특성으로 읽을 수 있다.

국문핵심어: 고정희, 수평적 저항성, 줄리엣 미첼, 동기애, 자매애, 남매애, 어머니의 법, 아버지의 법.

들어가며

본고의 목적은 줄리엣 미첼의 정신분석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고정희 시에 나타나는 수평적 저항성을 규명함에 있다. 고정희 시의 특징은 현실 문제에 대한 면밀한 관심¹과 참여에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고정희 시가 지니는 저항성은 크

1 구명숙, 「고정희 시에 나타난 타자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28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계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독재 정권 및 자본주의로 나타나는 정치경제적 권력에의 저항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중심주의적 권력에의 저항²이다. 이는 각각 민중해방과 여성해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현된 고정희 시의 저항성에 대한 연구는 여성에게 부여된 기호에의 저항³, 이분법적 대립의 위계질서를 뒤집는 다성성과 카니발적 세계⁴, 여성민중주의적 현실주의를 반영한 문체혁명⁵, 주변부를 중심부로 격상시키는 되받아쓰기(writing back)의 구현⁶, 외상적 중핵의 제시를 통한 의미화의 거부⁷, 모성이데올로기 부정과 남성 언어에 대한 투쟁 및 주체적 발화를 통한 저항적 주체화⁸, 공동체적 웃음을 통한 정치적 응징⁹, 수행성 개념을 통한 해방 담론 형성¹⁰, 낭시의 공동체론에 기반한 저항적 공동체의 양상¹¹ 등으로 제시된 바 있다.

-
- 2 “첫시집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1979)에 이어 『실낙원 기행』(1981), 『이 시대의 아벨』(1983), 『초혼제』(1983), 『지리산의 봄』(1987),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1989), 『광주의 눈물비』(1990) 등에서 주로 군부 독재와 자본주의가 가하는 민중 억압, 인간 억압, 여성 억압에 대한 고발과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광주와 민중 시위의 희생자들에 대한 씻김굿과 같은 시들을 썼다면 『여성해방 출사표』에 이르러 고정희는 ‘성 차별이 없는 유토피아로서의 여성들의 공간’을 꿈꾼다.” 김승희, 「고정희 시의 카니발적 상상력과 다성적 발화의 양식」, 『비교한국학』 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9쪽.
 - 3 김두한, 「‘여성’, 그 왜곡된 기호에 대한 시적 저항-고정희 시집 『여성해방출사표』의 세계-」, 『여성문제연구』 20권,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 4 김승희, 앞의 글.
 - 5 이소희, 『여성주의 문학의 선구자 고정희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18, 131-193쪽.
 - 6 박송이,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써 되받아 쓰기(writing back) 고찰-고정희 『초혼제』(1983) 장시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3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0.
 - 7 신지연, 「오월광주-시의 주체 구성 메커니즘과 젠더 역학」, 『여성문학연구』 1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 8 이소의, 「1980년대 이후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하위주체 자기인식과 저항적 주체화」, 『영주어문』 36권, 영주어문학회, 2017.
 - 9 김난희, 「1980년대 한국 여성시에 나타난 웃음과 그 시적 언어의 정치성」, 『여성문학연구』 34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 10 장서란, 「고정희의 역사 연작 시편에 나타나는 여성 해방 담론 연구-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60호, 한국문예비평학회, 2018.
 - 11 이은영, 「고정희 시의 공동체 인식 변화양상」, 『여성문학연구』 3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본고는 줄리엣 미첼의 수평적 정신분석학 논의를 바탕으로 고정희 시에 나타나는 저항성을 동기에(同氣愛)의 차원에서 밝히려 한다. 이를 통해 정치경제적 권력과 남성중심주의적 권력을 동시에 거부하는 교집합적 저항성을 규명하고, 동기에에 바탕을 둔 수평적 저항성을 통하여 여성해방과 더불어 양성평등, 나아가 인간 평등의 가능성이 제시됨을 규명할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고정희 시의 저항성이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집합적·연대적 차원에서도 구현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거대 담론에 대한 저항과 변혁에의 욕망은 반드시 개인 간의 연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고정희 초기 시에서의 동지는 “너”, “그대”로 나타나는 2인칭 단수 대명사로 제시됨으로써 추상적 타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후기 시에 이르러 동지로서의 타인들은 “자매”와 “아들딸”(남매)도 명명됨으로써 ‘동기’로서 구체화되며, 저항의 대상 또한 남성중심주의에 기반한 민중 억압과 여성 억압에 대한 교집합적 저항으로 거듭난다. 이는 초월적 “어머니”에 기반한 ‘어머니의 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억압받는 개인들은 ‘어머니의 법’을 위시함으로써 각자의 사회적 위치와 성적 차이를 넘어 동기에로 연대하며, ‘아버지의 법’에 기반한 남성중심주의와 독재 정권을 전복한다. 수평적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수평적 동기에에 기반하여 수직적 억압에 항거하는 고정희 시의 저항성과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규명함이 본고의 의의가 될 것이다.

2 수평적 정신분석학과 동기에(同氣愛)

줄리엣 미첼은 부모와 자식 관계,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나타나는 정신분석학의 수직적 축에 가려진 수평적 축, 즉 동기간 콤플렉스로 나타나는 확장적·수평적 축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수직적 패러다임의 유일무이한 중요성에 도전하는 수평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주장¹²하는 것이다. 미첼의 논의는 멜라니 클라인과 위니콧이 제시한 어머니의 중요성이 가정 내 아버지의 법을 대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며, 동기간 측면적 관계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12 줄리엣 미첼, 이성민 역, 『동기간: 성과 폭력』, b, 2015, 31쪽.

의미의 ‘어머니의 법’을 제시¹³한다.

미첼의 동기간 관계를 통한 일체의 측면 관계가 사회구조에 있어 본질적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거세 위협을 통하여 아이는 자신이 부모가 아님을 자각한다. 그러나 아이는 단지 이러한 위협, 즉 부정성으로서만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래 집단과의 일차 동일시와 차이화를 통한 긍정성을 통해 아이가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의 일차 동일시가 외상에 종속되는 것에 반하여 또래 집단과의 일차 동일시가 차이화에 종속된다는 사실은 이후의 삶에서 또래 동일시가 총체성과 다양성을 병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¹⁴하며, 이는 동기 관계가 지닌 사회적 통합 가능성을 암시한다.

아이에게 있어 또 다른 아이의 등장은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이의 나르시시즘은 초반에는 또 다른 아이에 대한 살의로 폭발한다. 그러나 이 살의에 저항하게 되면, 즉 유일무이한 나르시시즘적 자기에 대한 애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다른 것들 가운데 하나로서, 계열체적 차원으로 재창조하게 되면 아이는 자기 자신의 주체성(subjecthood)의 상징적 판본으로서의 자기존중을 획득하며, 새로운 형태로서의 타자에 대한 사랑을 획득¹⁵하는 사회화를 달성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기에 대한 사랑은 확장된 나르시시즘으로 작동¹⁶한다.

이때 동기 사이에서 전제되는 것이 ‘어머니의 법’이다.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들 상호간의 같음에서 평등하기 이전에 어머니에 대해서 그들 상호간의 차이에서 평등해야만 한다.¹⁷ 전통적 정신분석학에서 주목한 ‘아버지의 법’이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서려는 아이에 대한 상징적 처벌이자 상징계로의 진입 및 언어에의 접근과 연결된다면, 미첼의 ‘어머니의 법’은 계열성을 도입한다.

이 계열성은 실제 혈육으로서의 동기들, 놀이 친구와 학교 친구, 나아가 땀장

13 정지은, 「메를로-퐁티의 타자성에 대한 정신분석적 소고찰」, 『현대정신분석』 19권 1호,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2017, 50쪽 참조.

14 줄리엣 미첼, 앞의 책, 46쪽.

15 위의 책, 67쪽 참조.

16 위의 책, 88쪽 참조.

17 위의 책, 42쪽.

이, 재단사, 선원 등, 유일무이한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으로서의 ‘너’를 위한 여지를 제공한다. 계열성은 언어 안에서 발생하나, 문자능력(literacy)이 아닌 숫자능력(numbery)에 관한 것이다. ‘어머니의 법’은 이 ‘(숫자) 세기’를 바탕으로 둔다. 이를 통해 아이는 혈육뿐 아니라 자신 외에 ‘너’들, 즉 동기들을 자신과 같으면서 다른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자리를 내어 준다. ‘어머니의 법’을 통해 두려움과 충격으로서의 아이의 동기 경험은 증오와 사랑, 경쟁과 우정으로 변화함으로써 아이는 사회화되고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¹⁸이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미첼의 수평적 정신분석학 논의와 ‘어머니의 법’을 통해 형성되는 동기에란 곧 수평적 저항성으로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정희 시가 주목하는 현실 문제, 민중 억압과 여성 억압은 공통적으로 당대 현실을 구성하는 상징 질서로서의 ‘아버지의 법’¹⁹이라는 수직적 억압 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되며, 고정희 시의 저항성은 ‘아버지의 법’과는 다른 메커니즘에 바탕을 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어머니의 법’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동기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 이는 여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의 분열을 타개함으로써 수직적 억압 구조를 변혁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고정희 시에서의 초월적 ‘어머니’의 형성 및 이를 바탕으로 구현되는 사회적 남매애와 자매애, 즉 동기가 지닌 수평적 저항성을 분석할 것이다.

3 수평적 저항성을 형성하는 ‘어머니의 법’

18 위의 책, 88-94쪽 참조.

19 ‘아버지의 법’은 아이로 하여금 어머니와의 합일을 금지하고 상징계가 원하는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 즉 상징화하도록 하며 (권택영, 『라캉, 장자, 태극기』, 민음사, 2003, 25쪽.) 이는 수직적 권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남/녀의 ‘성적 차이’ 또한 이러한 수직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측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직적인 ‘아버지의 법’은 가부장제뿐 아니라 성차별주의, 형제[동기]애의 이데올로기의 가능성을 소거한다. (줄리엣 미첼, 앞의 책, 15;58쪽.) 신병식은 현대 한국에 있어 고문과 조작을 통해 주체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기입한 독재 정권의 대리인인 고문수사관과 이를 방조한 판사가 대타자 역할을 하였다고 지목한다. (신병식, 「정신분석의 시각에서 본 현대 한국의 고문과 조작」, 『현대정신분석』,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2014, 75쪽.)

고정희 시에서 나타나는 비판 대상은 거대 담론으로서의 식민주의²⁰, 자본주의²¹, 독재 권력, 여성 억압이다.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고정희가 주목하는 연대 가능성을 지닌 타자는 앞선 거대 담론에 의해 배제된 자로서, 이들은 민중과 여성, 피식민지인과 5.18 운동의 희생자 등으로 제시된다. 거대 담론에 대한 저항은 필연적으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합적·연대적 차원으로의 확장을 필요로 하나, 고정희 초기 시편에서의 연대적 타자는 “그대”, “너”라는 단수적 타자로 제시됨으로써 불특정 이자(二者) 관계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인다.

꽃들은 꽃들끼리 잔디는 잔디끼리/이슬 녹아 내리는 햇살을 마실 때/지구의 이층엔 꽃나무를 심어요/불꽃멍을 터지는 꽃나무를 심어요/햇빛부신 오후 시내를 태우듯/불꽃 피는 숲에 푸른 불줄기,//몇 광년을 흐르는 별이 될지라도/그대가 숲이거든 나는 물줄기/그대 뿌리 적시는 물줄기/바다 밑을 내려가는 태양이 타오르듯/지구의 이층엔 불꽃나무가 꾸어요

「숲」 부분(1:85-86)²²

「숲」은 억압으로 인하여 “유배지”로 향하는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신음하는 조상을 지계에 지고”, “식솔들의 눈물을 닦으며” 떠나는 이들의 모습은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과 유사성을 띤다. 그들은 “혼백들이 살아/푸른 목숨의 말씀 골짜기로 쏜는” 이상향으로서의 “숲”에 다다르는데, 이후 “나”가 제안하는 “불꽃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라는 신의 말씀이 현현한 불타는 떨기나무²³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즉 억압적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20 이연화는 고정희가 여성 문제와 민중 문제를 함께 모색하고 있으며, 여성성과 민중성, 근대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리얼리즘 측면에서의 탈식민성을 드러낸다고 서술한다. (이연화,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1 이은영, 「1980년대 시에 나타난 자본주의적 세계에 대한 재현과 부정성-고정희,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9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22 고정희, 『고정희시전집 1』, 또하나의문화, 2011, 85-86쪽, 이후 괄호 안 쪽수 표기.

23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나”의 의지가 기독교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현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나”는 “물줄기”가 되어 “그대”인 “숲”을 뒷받침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하여 “숲”이란 단순히 유토피아적 공간이라기보다는 “불꽃나무”, 즉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임과 동시에 동지로서의 “그대”의 의의를 나타내는 대 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어둔 동굴 밖에 비가 내리고/그대 끈끈한 기도보다 무거운 바람이
불고/상한 짐승들 외로운 밤에, 아아/동굴 속에 한 사람/상한 짐승처럼
피 흘리는 또 한 사람/죽쇄소리 잘랑이며 걸어오누나/이상주의(理想主義)
목발로 걸어오누나//(...)//가까이 오라, 그대여/들꽃보다 쓸쓸한
영혼의 뿌리/죽어서도 한(恨) 못 푸는 외로움이라면/천번도 더 타오르
고 싶구나/한때 우리들의 피를 부풀린/사제(司祭)의 축복과 종소리 다
어디로 가고/뺨속까지 흔들리는 그대와 나/꿈의 등대 하나 켜다 죽고
싶구나/불붙는 요(窯)에 사슬을 녹이고/들판 너머까지 밀리는 빛/떠도
는 원귀들도 잠재우고 싶구나/이상주의 목발의/그대와 나

「실락원 기행·3: 호곡(號哭)」부분(1:146-147)

「실락원 기행·3-호곡(號哭)」에서는 과거의 “사제의 축복과 종소리”가 사라진 채 비바람 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의 시적 주체와 “그대”와의 결합에의 욕망이 제시된다. “어둔 동굴” 안의 시적 주체와 “피 흘리며 “죽쇄”를 찬 “그대”의 모습, “뺨속까지 흔들리는 그대와 나”라는 서술은 “비바람”으로 나타나는 외부 현실의 억압의 크기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들꽃보다 쓸쓸한 영혼의 뿌리”와 “죽어서도 한 못 푸는 외로움”은 시적 주체와 그대가 처한 고독한 상황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꿈의 등대 하나 켜다 죽고 싶”다는 진솔과 걸음을 받쳐 주는 “이상주의 목발”은 “비바람” 치는 현재 상황을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내가 너를 바로
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2, 3:10

“이상주의”, “꿈”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시적 주체의 의지를 드러낸다. 즉, “그대”를 읽매는 “죽쇄”를 녹일 수 있는 것이 “불붙는 요(窯)”라는 진술은 “꿈의 등대”가 지니는 ‘빛’이라는 속성을 공유함으로써 “죽쇄”로 작용하는 현재의 억압을 극복할 수 있는 “이상주의”에의 의의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초기 시에서의 연대적 타자는 “너”, “그대”와 같은 2인칭 대명사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후 「서울 사랑」 연작에서의 연대적 타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친구여, 나는 오늘밤/오만한 절망으로 뿔뿔 뭉쳐진/한 사내의
술잔 앞에서/하느님을 모르는 절망이라는 것이/얼마나 이쁜 우매함인
가를/다시 쓸쓸하게 새김질하면서/하느님을 등에 업은 행복주의라는
것이/얼마나 맹랑한 도착 신앙인가도/토약질하듯 음미하면서, 오직/내
희망의 여린 부분과/네 절망의 질긴 부분이/툽니바퀴처럼 맞닿기를 바
랐다

「서울 사랑-절망에 대하여」 부분(1:302-303)

「서울 사랑-절망에 대하여」에서 “나”와 “친구”는 각각 희망과 절망의 시선으로 세상을 대한다. 그럼에도 “나”는 정반대의 태도를 지닌 “친구”의 뿌리를 이해하려 하는 동시에 각자의 “희망”과 “절망”이 “툽니바퀴처럼 맞닿”음을 원한다. 이는 “친구”와 “나”가 하나의 동력이 되어 암울한 현실을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오오 그러나 아우야/저주의 별판에 피뢰침을 세운 아우야/너를 가진 역사는 피로 기록되겠구나//(...)//우리는 오늘밤 강변에 앉아/떨리는 물잔을 높이 치켜들고/천지신명께 깊이 읍소하였나니/동해 푸른 자웅에 붓을 적셔/크고 넓은 하늘에/이렇게 쓰고 싶었다//오 야훼님/노하지 말소서/한 번만 더 간청하오니/여기 의인 열 사람만 두엄으로 뿌려지면/이 땅을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서울 사랑-절망에 대하여」는 자유를 위하여 희생한 “아우”를 호명하며 그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드러낸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되는 “서울”을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면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나”의 태도는 앞선 「서울 사랑-절망에 대하여」에서 나타나는 “나”의 실천적 태도와 연결됨으로써 “아우”와 같은 타자와의 연대, 이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우리”가 “두엄”이 됨으로써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한다.

이처럼 고정희는 억압적 현실에 저항하기 위한 연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연대를 위한 동지로서의 타자는 “너”, “그대”와 같은 2인칭 대명사에서부터 “친구”, “아우”로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나아가 구체화된 타자와 시적 주체가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로 포괄됨으로써 달성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하여 상호간의 차이에서 평등한 동기 관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고정희가 억압적 거대 담론에 맞서기 위한 연대 형성의 동력으로 ‘어머니’를 제시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어머니’를 구심점으로 형성되는 동기에, 즉 자매·남매·형제에는 계열성을 바탕으로 구성됨으로써 타자를 포용하고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개인적 차원, 혈육으로서의 어머니를 넘어선 사회적 차원으로서의 ‘어머니’로 제시되어야만 한다. 고정희 시에 등장하는 사회적 차원으로서의 ‘어머니’이자 남성 지배 문화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모성성²⁴을 지닌 ‘어머니’는 「박홍숙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어머니의 한평생을 재로 만들고/그들이 저더러 재가 되래요/그들이 저더러
돌이 되래요/그들이 저더러 칼이 되래요/어머니 저는 칼이 되고
말았어요/거꾸로 서는 피 이기지 못하고/그들의 가슴에 칼을 꽂고 말았

24 “80년대 이후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모성성을 임신과 출산, 수유에 한정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여성의 정체성 형성과 확립 과정으로서의 중요성뿐 아니라 남성 지배 문화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까지 인식하게 되었다.” 팽경민, 「고정희와 최승자 시에 나타난 모성성」, 『비평문학』 제47호, 2013, 263쪽.

어요/어머니의 한평생에 칼을 쫓고 말았어요//그러나 어머니 재가 되
진 마세요/그러나 어머니 돌이 되진 마세요/제가 죽어 무등산 응달에
묻히면/무등산 굽이굽이 수박씨 심으시고/무등산 수박 농사 풍년들게
하세요/무등산 드렁칫이 무등에 덮이듯/기름진 흙이 되어 돌아올게요/
무등산 양달이 되어/어머니 손매듭에 치렁치렁 감길게요/가슴에 맺힌
얼음 녹여 드릴게요/제가 죽었다 생각지 마시고/척박한 땅을 위해/밑
거름 되었거니 믿어 주세요/의지가 지 되었거니 잊어 주세요/오오 무등
이신 나의 어머니

「박홍숙전」 부분(1:328-329)

「박홍숙전」은 ‘무등산 타잔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된 시이다. 1977년 4월 20일 ‘무등산 타잔’이라는 별명을 가진 박홍숙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족들이 살던 집을 불태운 철거반원 4명을 살해한 이 사건은 유신독재와 개발주의로 인한 비극이었다. “세상에 돈 많고 부유한 사람만이 이 나라의 국민이고, 죄 없이 가난에 떨어야 하는 살들은 모두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를 최후진술로 남긴 박홍숙²⁵은 1980년 사형당하였으며, 이는 70년대 도시빈민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죽음을 앞둔 시적 주체는 “어머니”를 반복적으로 호명하며 자신의 뒤를 이어 “그들”에 저항하는 존재가 되어 주기를 촉구한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저항의 속성이다. 집을 불태워 “어머니의 한평생을 재로 만”든 유신독재와 개발주의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재”와 “돌”, “칼”이 되라는 데에 있다. “재”와 “돌”처럼 폭력의 희생자이자 침묵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거나, 혹은 “불”에 대응하는 “칼”이 되어 그들의 손에 처단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적 주체는 “어머니”에게 “칼”이 아닌 “수박 농사”를 권한다. 자신의 죽음을 “밑거름” 삼아 “무등산 수박 농사 풍년들게 하”라는 요구와 “응달”에 죽어 “양달”로, 업힘을 통한 조화를 암시하는 “드렁칫”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

25 “70년대 도시빈민과 광주 무등산타잔 박홍숙 사건”,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248>, 2010.04.14., 2021.03.31.

언은 박홍숙의 죽음 이후 추구해야 할 저항성이 이항대립에 기반한 남성중심주의 및 가부장적 사회구조, 근대 과학 기술에 있지 않으며, 그것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생태주의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의 말미에 이르러 “어머니”는 “무등”이 됨으로써 문명으로 인한 위계화된 이원론적 세계관을 상호의존성으로 변혁²⁶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자연적 존재²⁷로 거듭난다. “어머니”는 박홍숙 개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독재 권력, 자본주의, 여성 억압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된다.

오 빛고을의 그대여, 당신은 이제/63년 생애의 수난의 흔적들은/안으로 안으로 자랑스레 감추시며/무등의 기슭에 높다랗게 서 계시니/아직은 우리가/깊고 어두운 폭풍전야 속에 있지만/더러운 발자국을 거부하는 광주/죽어도 죽지 않는 광주와 함께/우리는 또다시 가야 합니다/이 거대한 침묵의 증인 되어/무등의 아들들을 일으켜세우고/무등의 딸들을 일으켜세우고/한반도의 자유시민과 함께/새 예루살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야 합니다-광주 YWCA 회관 신축 봉헌날에」 부분(1:526)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인 광주 YWCA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3.1운동을 포함한 민족운동 및 농촌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해방 이후에는 청소년 교육과 시민운동의 중심지로, 특히 80년대에는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읽을 때 위 시에서 두드러지는 바는 “깊고 어두운 폭풍전야”로 제시되는 억압적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한 동지들을 “무등의 아들들”과

26 “생명의 세계에서 본질은 상호의존성에 있으며, ‘생태계’란 이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적합한 삶의 터전을 이루고자 생물과 그 환경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체계”, 김종욱, 「근대성에 대한 불교생태학적 성찰」, 동국대학교 BK21 불교문화사상교육연구단 편, 『불교사상의 생태학적 이해』,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499쪽.

27 “땅은 자연과 사회의 삶의 재생을 위한 조건이다. 따라서 사회가 거듭 새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땅을 온전히 보존해야 하며 이는 땅을 신성하게 대할 때만이 가능하다.”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 역, 『에코페미니즘』, 창작과비평사, 2000, 134쪽.

“무등의 딸들”로 호명한다는 점이다.

「박홍숙전」과의 내적 상호텍스트성을 고려한다면, “무등”으로 거듭난 “어머니”는 박홍숙 개인의 어머니가 아닌 광주의 어머니이자 “한반도의 자유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새 예루살렘”을 여는 구심점으로 작동한다. 즉 “어머니”는 개인의 어머니에서 광주의 어머니로,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어머니로 확장됨으로써 사회적 동기애를 형성할 수 있는 변혁의 동력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시편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고정희의 굿시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는 적극적 행위주체로서의 ‘사람’을 형성함으로써 현실 변혁의 목적을 드러내며, 이때 “어머니”는 신격을 지닌 초월적 존재이자 역사의 희생자로서의 현실적 어머니라는 두 속성을 함께 지닌다. “어머니”는 한편으로는 인본주의적 평등사상인 ‘대동’을 촉구함으로써 새 민주집을 이룩하게 만드는 힘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고려시대부터 광주민주항쟁에까지 고통을 겪는 실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역사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 억압적 현실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한데 엮는 중심²⁸으로 작동한다.

어머니여/사람의 본이 어디이고 하니/인간세계 본은 어머니의 자궁이
요/살고 죽는 뜻은/팔만사천 사바세계/어머니 품어주신 사랑을 나눔이
라

「첫째거리-축원마당: 여자 해방염원 반만년」 부분(2:11)²⁹

아하 사람아/여자가 무엇이며 남자 또한 무엇이고/바늘 간 데 실 가고/
별 뜨는 데 하늘 있듯/남자와 여자가 한쪽으로 똑같이/천지신명 속에
든 사람인지라/높아도 안되고 낮아도 안되는/우주천체 평등한 저울추
인지라//(...)//여자 남자 근본은 제 안에 있는지라/사람의 뜻이 무엇
이고 하니/팔만사천 사바세계 생로병사/어머니 태아 주신 용기를 나눔

28 장서란, 「고정희 굿시의 재매개 양상 연구-『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를 대상으로-, 『서강 인문논총』 58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29 고정희, 『고정희시집 2』, 또하나의문화, 2011, 11쪽, 이후 괄호 안 쪽수 표기.

이라/태산의 높이를 헤아려/어머니 닦아주신 대동을 받들이라

「둘째거리-본풀이마당: 여자가 무엇이며 남자 또한 무엇이고

1. 천황씨 속에서 여자가 태어날 제」부분(2:18)

“남자”와 “여자”가 “우주천체 평등한 저울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머니”라는 “근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뜻”이 “대동(大同)”을 받들어야 함은 남녀간 차이는 존재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동등하다는 사실, 즉 숫자능력으로서의 계열성을 드러낸다. 나아가 대동에 큰 세력이 합동한다는 뜻과 온 세상이 번영하여 화평케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은 곧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나가 되어 억압을 극복하고 세상을 화평케 만들 것이라는 의미³⁰를 제시한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법 아래에서는 그들 상호 간의 차이에서 평등³¹하다. 수난자로서의 현실적 어머니이자 인간의 근본이 되는 초월적 어머니의 법 아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차(性差)는 배경화되고, 평등한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인간상³²을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동기에는 수평적 저항성을 형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정희 시에 나타나는 동기에, 즉 사회적 남매애와 자매애를 통한 아버지의 법에의 저항성을 규명하려 한다.

3.1 성차를 벗어나는 남매애와 ‘아버지의 법’에의 저항

고정희의 굿시 『저 무덤 위의 푸른 잔디』는 축원마당, 본풀이마당, 해원마당, 진혼마당, 길뉘음마당, 대동마당, 통일마당, 뒷풀이로 이루어져 있다. 굿이 부정거

30 장서란, 앞의 글, 21쪽.

31 줄리엣 미첼, 앞의 책, 42쪽.

32 “이 시집에서 나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어머니의 혼과 정신’을 ‘해방된 인간성의 본’으로 삼았고 역사적 수난자요 초월성의 주체인 어머니를 ‘천지신명의 구체적 현실’로 파악하였다. (...) 민족공동체의 회복은 ‘새로운 인간성의 출현과 체험’의 회복을 전제로 한다. 그 새로운 인간성의 모델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까? 나는 그것이 수난자 ‘어머니’의 본질에 있다고 믿는다.” 고정희, 앞의 책, 「후기」, 121쪽.

리, 청신거리, 오류거리, 기원거리, 뒷전거리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에 있어 굿의 목적을 드러내는 기원거리에 해당하는 해원마당과 진혼마당은 굿시의 목적이 수난자 “어머니”와 광주민중항쟁의 희생자들의 넋을 푸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역사적 수난자로서의 어머니의 죽음과 광주민중항쟁의 희생자들의 죽음의 원인이 ‘아버지의 법’에 기반한 억압적 상징 질서라는 공통분모를 가진다는 점이다.

넋이야 넋이로다/이 넋이 뉘신고 하니/광주민중항쟁 때 죽은 우리 어머니
아니신가/애기 낳다 칼맞은 우리 어머니/피 뿔다가 총맞은 우리 어머니
숨겨주다 곤봉맞은 우리 어머니/밥 나르다 불퇴맞은 우리 어머니
아들 시체 묻어주다 몰매맞은 우리 어머니/말리다가 따발총에 쓰러
지신 우리 어머니/저놈들이 짐승이지 인간말종 내 못 본다/쇠스랑 들고
달려가던 우리 어머니/조선낫 들고 달려가던 우리 어머니/통곡으로 밥
을 짓던 우리 어머니/오월 재앙 들여마신 우리 어머니 아니신가

「셋째거리-해원마당: 지리산에 누운 어머니 구월산에 잠든 어머니

2. 넋이야 넋이로다 이 넋이 뉘신고 하니」부분(2:31-32)

셋째거리인 해원마당에서의 “어머니”는 고려시대부터 광주민중항쟁까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존재로 제시된다. “어머니”는 역사 가운데서 수난자로 제시되나,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일제 시대에는 “약지 잘라 혈서 쓰던 독립군 어머니”로, 광주민중항쟁에는 “숨겨주”거나 “밥 나르”는 행위를 통해 항쟁을 지원하거나 “쇠스랑”과 “조선낫”을 들고 달려가는 적극적 저항자로서의 모습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는 이후 제시되는 넷째거리 진혼마당의 희생자들과 어머니와의 연결성을 드러낸다.

사람마다 뿌리 두는 어머니/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울리는 어머니/그
단장의 이름으로 불러 보는 이름 석자/비명절규 사연 여기 있사외다//
(…)//길을 가는 대낮에도/칼로 꽃히는 이름 석자

「넷째거리-진혼마당: 넋이여, 망월동에 잠든 넋이여

1. 오월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 부분(2:37-39)

넷째거리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은 “어머니”에게 읊소하는 화자의 절규이다. 광주민중항쟁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모습은 셋째거리의 희생자 “어머니”와 동일성을 지니며, 희생자들이 외치는 “이름 석자”, “어머니”는 희생자들과 “어머니”의 관계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나아가 광주민중항쟁의 희생자들은 “아들”과 “딸”로 호명됨으로써 “어머니” 하에 결집한다.

식당조바 우리 아들들……/호남전기 생산부 우리 딸들……/녕마주이
우리 아들들……/황금동 흥등가 우리 딸들……/전기용접공 우리 아들
들……/술집 접대부 우리 딸들……/구두담이 우리 아들들……/야간학
교 다니는 우리 딸들……/무의탁소년원 우리 아들들……/방직공장 우
리 딸들……/주저없이 망설임없이/총받이가 되고 칼받이가 된 자들/진
압봉에 머리 맞아 쓰러진 자들

「넷째거리-진혼마당: 낮이여, 망월동에 잠든 낮이여
6. 저들이 한반도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부분(2:48-49)

이들은 항쟁에 참여하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아들들”, “딸들”로 호명됨으로써 셋째거리의 저항자 “어머니”의 자식으로 의미화된다. 넷째거리에서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로, 넷째거리의 희생자들이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로 제시됨은 어머니-자식 관계가 “우리”를 통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즉 “식당조바”, “호남전기 생산부” 등에 속한 각기 다른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법’이라는 계열성 안으로 포섭됨으로써 동기가 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남매애를 형성한다.

사회적 남매애는 동기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동일시함으로써 동기의 죽음의 원인인 ‘아버지의 법’에 저항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동기는 초기 자아에 있어 동일자로서 경험³³되기 때문이다. 죽음 및 형제(동기) 살해 금지에 대한

33 줄리엣 미첼, 앞의 책, 95쪽.

인지 또한 형제(동기)의 실존이 주체의 자기 죽음으로서 경험되는 데에서 비롯된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재감은 중요한 타인이 사망할 때마다 소생할 수 있는 외상이다. 특히 죽은 자가 또래인 경우, 죽은 자와의 한 측면과의 즉각적인 모방적 동일시³⁴가 일어난다. 즉 “우리 어머니”의 법 아래 구축되는 사회적 남매애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모방적 동일시를 발생시킴으로써 텍스트 내부의 저항적 의미뿐 아니라 외부의 독자들로 하여금 동기들의 죽음의 원인인 ‘아버지의 법’에 저항하도록 합심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아하 사람아/본은 어머니요 그 뜻은 사랑이라/해동국 조선땅 팔만사천
사바세계/사람의 길이 다/사람 안에 있으니

「다섯째거리-길담음마당: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으니

1. 사람의 길이 다 사람 안에 있으니」 부분(2:65-66)

<매기는 소리>/오늘날 어찌하여 해방길이 막혔는고 하니/허욕정치 허
세정치 허물정치 ‘석삼허’ 때문이라//(...)//<받는 소리>/이런 허접쓰
레기가/해방길을 막았구나/에잇, 버러지야, 에잇 쓰레기야/몰랐더냐
몰랐더냐 몰랐더냐/냉엄하신 민주시민 철퇴를 몰랐더냐

「다섯째거리-길담음마당: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으니

3. 오늘날 어찌하여 우리 길이 막혔는고 하니」 부분(2:67-68)

진혼마당 이후 전개되는 길담음마당은 현실 참여를 통해 앞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곳의 상징적 해결을 뛰어넘어 실질적 해결을 촉구³⁵한다. 이때 두드러지는 것은 문제 해결의 주체인 “사람”의 근본이 “어머니”이며, 그 뜻이 “사랑”에 있다는 점이 다시금 제시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어머니”

34 위의 책, 65-66쪽.

35 장서란, 앞의 글, 24쪽.

의 법에 속한다는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계열성 및 사회적 동기애를 통하여 “대동”을 이룩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후 길닢음마당에서는 해방, 평등, 민주, 자유를 막는 “석삼허(석삼허)”, “석삼독”, “석삼살”, “석삼중”이 제시되며, 이는 각각 정치인과 기업인, 군인, 굴종하는 여자를 나타낸다. 이는 독재와 개발주의, 학살과 가부장제 복종은 상징 질서로 작동하는 ‘아버지의 법’의 표상이다. 이들은 “민주시민”에 의해서 쫓겨나며, “민주시민”은 “시민군”으로 구체화된다.

이는 “사람”의 연대, 즉 성차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법’의 계열성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동기애, 즉 사회적 남매애가 수평적 저항성을 구축³⁶하고 수직적 ‘아버지의 법’을 쫓아내는 현실 변혁의 가능성을 지님을 나타낸다. 나아가 이는 “여성주의 문학은 (...) 성별 분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 문화를 극복하고 참된 인간해방 공동체를 추구하는 대안 문화로서 ‘모성 문화’ 혹은 ‘양성 문화’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문학”³⁷이라는 점에서 고정희가 추구하는 여성문학의 방향성과 의의를 반증한다.

3.2 “정실부인”과 “독신녀”의 자매애와 ‘아버지의 법’에의 저항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이후 저술된 고정희의 역사 연작 시편은 여성 담론과 역사를 연결함으로써 역사·사회(여성) 문제를 총체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시

36 구명숙은 고정희 시가 후기로 갈수록 타자에 대한 저항보다는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화해와 용서를 타자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보았다. 여성을 타자로 만드는 남성을 적으로 보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구원하고 끌어안는 포용성을 ‘어머니’에게서 발견하는 것이다. (구명숙, 앞의 글, 190-191쪽.)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는 여성 일방의 용서를 요구한다는 점과 용서하고 포용하는 여성성(모성성)이라는 이미지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의 법’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남매애는 일방의 양보가 아닌 어머니의 자식으로서의 계열성, 즉 같으면서 다른 대상에 대한 포용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7 고정희, 「한국 여성 문학의 흐름-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조형 외 엮음,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또하나의문화, 1993, 177쪽.

인의 입장³⁸을 드러낸다. 「현대사 연구」, 「여성사 연구」, 「이야기 여성사」로 구성되는 역사 연작 시편은 기존의 억압적 젠더 규범과 이를 형성하는 이분법적 체계 모니를 무너뜨림으로써 사회적 실재를 창조하는 수행적 저항성을 구성³⁹한다. 역사 연작 시편에서 저항의 기반으로 제시되는 ‘어머니’는 「박홍숙전」에서 제시되었던 자연의 현신이자 사회적 어머니로서 나타난다.

인간에게 번쩍번쩍 광나는 모습이 있다면, 어머니/그것은 한여름 푸르고 넓은 들밭에서/곡식들의 싱그러운 뿌리를 토닥이며/즐거기를 쓰다듬으며 지심이란/지심은 모조리 뽑아/강물 같은 하염없는 땀으로/대지를 맥감기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아아 어머니,/우리가 이 지상을 지나가는 생애 동안/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평생 동안/우리에게 가장 따뜻하고 절실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밥상머리 둘러앉은 식솔과 불러들인 이웃에게/앞앞이 따순 밥 정을 담는/어머니의 손입니다/등이 추운 사람에게 속이 빈 사람에게/배가 고프 사람에게 정이 고프 사람에게/앞앞이 한 그릇씩 고봉으로 고봉으로/따순 밥 정을 담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바로/우리 고향 있고/돌아갈 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이야기 여성사·7」 부분(2:301-309)

위 시의 제목은 주기도문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패러디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어머니”는 초월적 존재로 좌정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초월성은 기독교적 절대자 “아버지”와 달리 전지전능함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어머

38 “재해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오랜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빚어진 여성의 문제를 단순히 남성 여성간의 사적인 대비로 보지 않고 우리 전체가 역사적 맥락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죠. 여성해방문학에서 여성을 포착할 때 그것은 한 여성의 고통이면서 모든 여성의 고통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역사 속에서 빚어진 사건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죠. 우리가 당연시해왔던 것조차 이렇게 역으로 보는 데서 재해석이 시작되어야 하겠죠.” 또하나의문화동인, 『여성해방의 문학』, 평민사, 1987, 24쪽.

39 장서란, 「고정희의 역사 연작 시편에 나타나는 여성 해방 담론 연구-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60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니”의 초월성은 “하염없는 땀으로/대지를 떡감기는” 노동과 생명을 길러내는 땅의 현신이라는 점에서 연유한다.

다른 한편, “어머니”가 “인간에게 번쩍번쩍 광나는 모습”으로 서술됨은 초월적 “어머니”가 “사람”의 “어머니”임을 암시한다. 나아가 “어머니”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머니라는 점은 “식솔”뿐 아니라 “불러들인 이웃”에게도 공평하게 “따순 밥 정을 담은”다는 서술을 통하여 강조된다. “식솔”과 “이웃”은 다르며, “식솔”끼리와 “이웃”끼리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들은 “어머니”를 통하여, 즉 ‘어머니의 밥’을 바탕으로 차이를 지니면서도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동일성을 내포하는 계열성을 구축한다. “따순 밥 정을 담은 어머니의 마음속”으로 제시되는 ‘어머니의 밥’이 “우리 고향”이자 “돌아갈 길”로 연결됨은 “사람”의 근본인 “어머니”의 뜻으로서의 “대동”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뜻, ‘어머니의 밥’을 근본으로 삼는 역사 연작 시편에서의 저항성 또한 위계화된 이원적 세계관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된다.

베를린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듯/내 속의 적을 무너뜨리고/그대 속의 적을 무너뜨리고/여자와 여자 사이 적을 무너뜨리고/가족과 가족 사이 적을 무너뜨리고/남자와 여자 사이 적을 무너뜨리고/딸과 아들 사이 적을 무너뜨리고

「여자가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하여-이야기 여성사·6」

부분(2:295-296)

위 시에서 제시되는 것은 “베를린 장벽”, 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대립적 이념으로 나타나는 이항대립의 타파이다. “적”이란 이원론적 세계관에 있어서 대표적인 타자의 표상이다. 이때 “적”이 저편의 구체적 대상, 즉 “여자”, “남자”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 사이”, “가족과 가족 사이”에 위치함은 “적”이란 이항대립적 사고 자체를 가리키는 것임을 드러낸다.

나아가 이 “적”의 위상이 “남자와 여자 사이”, “딸과 아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서술은 “적”을 무너뜨리는 ‘어머니의 밥’이 성적 차이가 아닌 젠더 차이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밥’에서의 거세 콤플렉스가 성적 재생

산에 의해 요구되는 성적 차이를 표지하는 것과 달리, ‘어머니의 법’은 성욕을 포함하되 재생산을 금지하는 젠더 차이를 내포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서로를 구별하지 않으며, 오로지 어머니로부터만 구별한다. 미첼은 재생산에 의해 요구되는 절대적인 성적 차이란 오이디푸스적인 수직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수평적 축을 따라 생성되는 여자아이/남자아이의 차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젠더’를 사용한다. 이는 성에 의해 직접 규정되지 않고 성욕을 직접 규정하지 않는 관계들의 전 체계를 강조한다.⁴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어머니”는 아이들을 동등한 위치에서 구별⁴¹지음으로써 동기애의 바탕을 구축함을 알 수 있다.

역사 연작 시편의 특징은 동성 사이의 분열을 타개하는 자매애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여성운동에 대한 고정희의 신념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주의 축을 옮기는 힘을 지닌 자매애에 대한 신념에 기초⁴²하였으며, 고정희가 몸담은 『또 하나의 문화』는 각기 다른 위치성을 지닌 여성들의 연대에 기초한 여성 해방을 도모⁴³했다는 점은 고정희 시의 자매애의 특징을 해석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실부인회와 보수대연합-이야기 여성사·5」에서는 해방 이후 설립된 건국준비부인회의 내부 분열로 인한 여권 신장의 좌절을 지적함으로써 여성간 대립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선창)/대저 하자 있는 여성이란 어떠한 여성이든가/(합창)/본처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돈 많은 남자 덕에 먹물든 여자/권력 높은 남자 덕에 해외유학 다녀온 여자/내로라하는 남자 소실이 된 여자/지적 미모 뽐내며 첩실이 된 여자/여필중부하지 않고 이혼한 여자/정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신여자!//(…)//(선창)/그러므로 대범, 우리 여권신장은 동의 대표자는 반드시/(합창)/정실부인에 한한다, 정실부인에 한한다, 정실부인에 한한다/(선창)/하자 있는 여성들이 설치는 여권이란?/(합

40 줄리엣 미첼, 앞의 책, 62쪽 참조.

41 위의 책, 101쪽.

42 이소희, 앞의 책, 216쪽.

43 김보경, 「『또 하나의 문화』의 여성시에 나타난 ‘차이’라는 여성 연대의 조건과 가능성」, 『한국현대문학연구』 60권, 한국현대문학회, 2020, 130쪽.

창)/봉쇄하자, 봉쇄하자, 봉쇄하자

「정실부인회와 보수대연합-이야기 여성사·5」 부분(2:281-282)

“남자주도형” 건국준비부인회는 가부장제의 기반인 이원적 사고를 적용하여 “하자 있는” 여성과 “정실부인”을 구분 지음으로써 “하자있는여권신장무효론”을 발표한다. 이로 인한 여성 내부의 분열은 가부장제 철폐와 여권 신장이라는 소기의 목적은커녕 “정실보수대연합”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여권 신장의 퇴보로 귀결된다.

다른 한편, “정실보수대연합”과 1990년 여소야대 정국을 뒤바꾼 “보수정치대연합”이 “아무래도 좀 닳지 않았”느냐는 물음은 두 집단 모두 여남평등과 통일민주라는 탈이원론적 혁명을 거부하며, 기존의 이원론적 위계의 지속을 바라는 보수적 집단이라는 차원에서 교집합적임을 시사한다. 이는 여성해방과 민주화가 동일선상에 놓인다는 점을 통해 민중해방과 여성해방의 총체적 교섭 가능성⁴⁴을 제시함으로써 “사람”의 연대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고정희 시가 지닌 수평적 저항성의 특질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민중과 여성을 억압하는 ‘아버지의 법’의 수직성에 저항하기 위한 움직임은 ‘어머니의 법’이 지니는 계열성을 바탕으로 한 동기애의 구축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봐요, 결혼은 저영말 안 할 꺼예요?/내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그 능력 그 재능이 결혼하면 얼마나 빛날까……안타까워 하는 말인데,/제발 시집 좀 가/저영 안 되면 남자하고 연애라도 해, 으응?/까짓 거 여자로 태어나서/혼인하고 아이 낳고 엄마 노릇 하는 거/이것보다

44 “나는 사회변혁운동과 페미니즘운동 사이에서 나름대로 심각한 갈등을 겪어 왔다. 예를 들면 민중의 억압 구조에는 민감하면서도 그 민중의 ‘핵심’인 여성 민중의 억압 구조는 보지 않으려 한다든지, 한편 성억압에는 첨예한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민중’이라는 말로 포괄되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억압 구조에는 무관심한 듯한 현실 등이 그것이다. (….) 민중의 해방이 강조되는 곳에 몰여성주의가 잠재되어 있다든지, 여성해방이 강조되는 곳에 몰역사, 탈정치성이 은폐되어 있다면 이것이 사회변혁운동으로서 총체성을 획득하기엔 너무 뻥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고정희, 「서문」, 위의 책, 339쪽, 강조는 인용자.

더 소중한 게 뭐 있어요//(...)//독신녀에 대한 성토대회(?)가 끝난 후/
 참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서로 손을 흔들며 뒤돌아서/제각기 바쁜
 길을 재촉했지만/우리가 헤어진 등뒤에/뭔가 슬픈 그림자가 어른거렸
 습니다/평행선을 질주하는 두 목마름처럼/자꾸만 목젓에 뜨거운 기운
 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여자가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하여-이야기 여성사·6」

부분(2:285-290)

위 시의 배경은 “제삼세계 여자인권과 정의-평화 문제를 논하는 자리”였으나
 “독신녀”에게 결혼을 통한 가부장제 편입을 종용하는 “정실부인”의 “성토대회”
 로 마무리된다. 이는 앞선 「정실부인회와 보수대연합-이야기 여성사·5」에서 “독
 신녀”를 “하자 있는 여성”으로 취급하는 “정실부인”의 태도이다. 그러나 앞선 시
 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위 시에서 “정실부인”과 “독신녀”는 “뭔가 슬픈 그림자”와
 “목마름”을 공통으로 지니는 “우리”라는 시적 주체의 인식이다.

“정실부인”과 “독신녀”는 “평행선을 질주하”고 있으나, 시적 주체는 서로를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로서 포함하려는 자세와 어긋나는 상황에 대한 좌
 절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나아가 “정실부인”과의 연대를 향한 욕망을 직접
 적으로 제시하며, “우리”의 불화의 원인으로 “적”을 지목한다.

비정하게 저무는 낮선 거리에서/그대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운명
 을 수락하듯/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향해 갑니다/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조차/왜 우리는 단순하게 손잡지 못할까요/왜 우리는 질
 투하는 두 짐승처럼/함께 가는 길에 툼툼 소금을 뿌리는 것일까요//때
 로 나는 내 자신 속에서/그대와 나를 갈라놓은 내 적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때로 나는 당신 속에서/그대와 나를 갈라놓는 당신의 적
 을 만납니다

「여자가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하여-이야기 여성사·6」

부분(2:290-292)

“독신녀”인 시적 주체가 원하는 바는 “정실부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단순하게 손잡”는 것이다. 이는 독신녀/정실부인, 나/타자로 분리된 이원적 관계를 넘어 연대자로서의 “우리”가 되려는 욕망이다.

“우리”가 “우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원성에 기반한 배타적 사고로서의 “적”이다. “나”의 “적”은 “너는 검은색이고 나는 흰색이야”와 같이 “당신”과 “나”를 구분하는 “금”을 긋는 모습으로, “시 한 편 없이도 살만 찌는 주제에/하하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같이 “당신”의 인생론과 행복론, 사랑법을 무시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당신”의 “적”은 “결혼한 여자가 흐르는 물이라면/독신녀는 고여 있는 물”, “여자의 본분은 희생봉사 아니에요”, “십리 밖에서부터 정실당리당락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이 독신녀를 폄훼하는 동시에 가부장제가 부여한 여성의 자리를 답습하고 강요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불화 가운데서도 “독신녀”와 “정실부인”이 “동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는데, 이는 ‘아버지의 뱀’ 치하에서 겪는 공통된 좌절에 있다.

아아 그러나 때때로/나는 당신 속에서 동지를 만납니다/좌절의 받고랑
에 토약질하는 등 두드리는 손끝에서/나는 동지의 순정을 만납니다//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가 걸어갔고/우리 이모와 고모가 걸어갔
고/오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내일은 우리 딸들이 가야 할 이 길,/
이 길에 울연한 그대 모습 마주하여/나는 동지의 뿌리를 만납니다/우리
서로 한순간의 포옹 속에서/억압 끝, 해방무한 동지를 만납니다

「여자가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하여-이야기 여성사·6」

부분(2:294-295)

“당신” 속에서 만나는 “적”이 아닌 “동지”는 “좌절의 받고랑의 토약질하는 등 두드리는 손”에 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은 타자를 주체와 별개의 존재라고 인식하는 이분적 사고에서는 불가능한 행위로, 이는 “나”와 “당신”이 ‘차이’를 지니는 동일자, 즉 ‘동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자매애의 형성을 시사한다.

“나”가 “울연한 그대 모습”을 마주함으로써, 즉 “나”의 고통과 “그대”의 “울

연'함이 동일하다는 것, “동지의 뿌리”를 자각함으로써 생성되는 동기에는 주체와 동기가 같다고 여겨질 때 확장되는 나르시시즘적 사랑이다. 자기존중과 동기에 대한 대상 사랑은 동등⁴⁵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법’으로 작동하는 수직적 억압성에 저항하는 동기의 연대는 나-타자와의 관계보다 공고해질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연대가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의 계보와 연결되는 것은 각기 다른 주체들을 계열성으로 엮는 “어머니”의 법이 작동함을 시사한다. “할머니와 어머니”에서부터 “우리”뿐 아니라 “우리 딸들”로 나타나는 수많은 동기들은 연쇄적인 숫자로 제시됨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사회적 자매애로서의 수평적 저항성의 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는 여성 내부의 수많은 입장 차이를 피억압자로서의 자매애로 타개함으로써 공통 억압자인 수직적 ‘아버지의 법’, 가부장제에 저항할 수 있는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4 나가며

본고는 줄리엣 미첼의 수평적 정신분석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고정희 시에 나타나는 수평적 저항성을 규명하였다. 줄리엣 미첼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수직적 관계에 가려진 동기간 수평적 관계에 주목하였다. 동기 관계에서 작동하는 ‘어머니의 법’은 ‘아버지의 법’과 달리 아이들의 상호간 차이에서 평등함을 전제한다. 동일자로서의 동기, 타자에 대한 대상 사랑은 확장된 나르시시즘의 일환으로 작동하므로 ‘어머니의 법’을 통해 형성되는 동기에는 수평적 저항성의 가능성을 지닌다.

현실 변혁을 목적으로 삼는 고정희 시에 있어 “어머니”는 현실적·초월적 속성을 동시에 지님으로써 피억압자의 상징이자 억압받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로서 좌정한다. 또한, 농사와 연결되는 “어머니”는 상호의존적인 순환적 자연관과 연결됨으로써 이분법적이고 억압적인 상징 질서를 극복하는 새로운 질서로 제시된다. 즉, “어머니”를 중심으로 삼아 구축되는 동기에는 여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의 분열을 타개함으로써 수직적 억압 구조를 변혁하는 강력한 동력으

45 줄리엣 미첼, 앞의 책, 321쪽.

로 작동한다. 이는 성별 분업·지배 문화에서 벗어나는 대안 문화로서의 ‘모성/양성 문화’로서의 고정희의 여성주의 문학의 방향성을 담지한 새로운 연대이다.

“어머니”는 과거 고려시대에서부터 현재 광주민중항쟁에까지의 수난자로 형상화되며, 광주민중항쟁에서의 희생자들은 “아들”과 “딸”로 호명됨으로써 성별, 직업, 나이 등의 차이에서 평등해진다. 상호간의 같음에서 평등한 ‘아버지의 법’ 이전에 상호간의 차이에서 평등한 ‘어머니의 법’은 “대동(大同)”이라는 “어머니”의 뜻으로 구체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사회적 남매애는 여남평등과 민주사회를 이룩하는 혁명적 힘으로 작동한다.

다른 한편, ‘어머니의 법’은 사회적 남매애뿐 아니라 자매애를 구축함으로써 억압적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성의 바탕으로 작동한다. “독신녀”와 “정실부인”으로 대표되는 두 극점은 그들이 공통된 피억압자라는 인식, 즉 ‘동기’라는 인식을 통해 연결된다. 나아가 “할머니”에서부터 “우리 딸들”까지 이어지는 자매의 연쇄는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수평적 저항성의 힘을 드러냄으로써 수직적 억압인 ‘아버지의 법’을 타파하는 가능성으로 제시된다.

고정희 시에서의 “어머니”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회적 남매애와 여성과 여성 사이의 사회적 자매애 형성의 기반이 됨으로써 성차를 극복하는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독재 정권과 성차를 구성하는 수직적 억압 구조로서의 ‘아버지의 법’에 항거하는 수평적 저항성을 구현한다. 이처럼 ‘어머니의 법’으로 ‘아버지의 법’을 몰아내려는 시적 상상력은 고정희 시가 지니는 저항성의 특징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고정희, 『고정희 시전집 1』, 또하나의문화, 2011.

_____, 『고정희 시전집 2』, 또하나의문화, 2011.

단행본

권택영, 『라캉, 장자, 태극기』, 민음사, 2003, 25쪽.

동국대학교 BK21 불교문화사상교육연구단 편, 『불교사상의 생태학적 이해』,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499쪽.

또하나의문화동인, 『여성해방의 문학』, 평민사, 1987, 24쪽.

이소희, 『여성주의 문학의 선구자 고정희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18, 131-193;216쪽.

조형 외 엮음,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또하나의문화, 1993, 177쪽.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 역, 『에코페미니즘』, 창작과비평사, 2000, 134쪽.

줄리엣 미첼, 이성민 역, 『동기간: 성과 폭력』, b, 2015, 21;42;46;62;67;88-94;321쪽.

논문

구명숙, 「고정희 시에 나타난 타자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28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169-196쪽.

김난희, 「1980년대 한국 여성시에 나타난 웃음과 그 시적 언어의 정치성」, 『여성문학연구』 3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231-268쪽.

김두한, 「‘여성’, 그 왜곡된 기호에 대한 시적 저항-고정희 시집 『여성해방출사표』의 세계-」, 『여성문제연구』 20권,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7-19쪽.

김보경, 「『또 하나의 문화』의 여성시에 나타난 ‘차이’라는 여성 연대의 조건과 가능성」, 『한국현대문학연구』 60권, 한국현대문학회, 2020, 119-151쪽.

김승희, 「고정희 시의 카니발적 상상력과 다성적 발화의 양식」, 『비교한국학』 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9-37쪽.

박송이,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써 되받아 쓰기(writing back) 고찰-고정희 『초혼제』(1983) 장시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3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0, 225-255쪽.

신병식, 「정신분석의 시각에서 본 현대 한국의 고문과 조작」, 『현대정신분석』,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2014, 54-102쪽.

- 신지연, 「오월광주-시의 주체 구성 메커니즘과 젠더 역학」, 『여성문학연구』 1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31-73쪽.
- 이소의, 「1980년대 이후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하위주체 자기인식과 저항적 주체화」, 『영주어문』 36권, 영주어문학회, 2017, 107-142쪽.
- 이연화,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182쪽.
- 이은영, 「1980년대 시에 나타난 자본주의적 세계에 대한 재현과 부정성-고정희,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9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205-238쪽.
- _____, 「고정희 시의 공동체 인식 변화양상」, 『여성문학연구』 3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57-289.
- 장서란, 「고정희 굿시의 재매개 양상 연구-『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를 대상으로-」, 『서강인문논총』 58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5-38쪽.
- _____, 「고정희의 역사 연작 시편에 나타나는 여성 해방 담론 연구-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60호, 한국문예비평학회, 2018, 71-98쪽.
- 정지은, 「메를로-퐁티의 타자성에 대한 정신분석적 소고찰」, 『현대정신분석』 19권 1호,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2017, 47-75쪽.
- 팽경민, 「고정희와 최승자 시에 나타난 모성성」, 『비평문학』 제47호, 2013, 261-293쪽.

기타

- 최인기, “70년대 도시빈민과 광주 무등산타잔 박홍숙 사건”, <참세상>, 2010.04.1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248>

Abstract

A Study on the Horizontal Resistance of Goh Jeong Hee's Poet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horizontal resistance of Hoh Jeong-hee's poetry based on Juliet Mitchell's horizontal psychoanalytic discussion. Unlike the 'Father's law', which operates in a horizontal motivation relationship, the 'Mother's law' presupposes equality in children's mutual differences. Siblinghood formed through the 'Mother's law' has the potential to be formed as horizontal resistance.

Goh Jeong-hee embodies horizontal resistance to the 'Father's law' that suppresses the 'present' by building social brother and sisterhood, sisterhood, that is, siblinghood, with 'mother' as the center. The 'Mother' sits as a symbol of the oppressed and as the 'Mother' of all oppressed people by having realistic and transcendental attributes at the same time. It is also presented as a new order that overcomes the dichotomous and oppressive symbolic order by being connected to the interdependent cyclical view of nature.

In other words, siblinghood, which is built with the 'mother' as the center point, works as a powerful driving force to transform the vertical repression structure by sealing the division between women and men, women and women. In other words, the poetic imagination to drive out 'Father's law' with 'Mother's law' can be read as a characteristic of Goh Jeong-hee's resistance.

Key words: Goh Jeong-hee, horizontal resistance, Juliet Mitchell, siblinghood, sisterhood, brother and sisterhood, Mother's law, Father's law.

논문제출 / 2023. 10. 31.

논문접수 / 2023. 11. 23.

게재확정 / 2023. 12. 05.